

목요일

고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22-25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 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 곳이다.

묵상

길을 만들고 집을 짓기 위해 산을 깎아 내는 인간은 쓰레기로 산을 만들기도 합니다. 못 쓰면 버리고, 다 쓰면 버리고, 망가 지면 버리고, 싫증나면 버리고, 더 좋은 것이 생기면 버리고, 버리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이집트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목마름 끝에 마라라는 곳에 이르러 마침내 물을 만나게 됐지만 그 곳의 물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입장에서 보자면 물이 없는 상황보다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상황이 더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원망하는 이들이 있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며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나무를

보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나무를 바라보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무의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물을 변화시킨 것은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효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짖음의 결과였고, 주님의 말씀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서른여덟 해가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은 병자가 원했던 것처럼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 가지고 걸어가거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일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치료하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달게 변한 물을 마신 백성들은 마침내 엘림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곳에는 샘이 열두 곳이나 있고, 종려나무는 일흔 그루나 있었습니다. 열두 샘은 열두 지파가 넉넉히 마실 수 있는 샘이 되었을 것입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꾼 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떠올린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쓰디쓴 상황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한 나무를 보이실 때, 우리는 그 나무를 우리 중심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병을 고칩니다.

PRAYER

우리의 쓰디 쓴 삶은 마라의 쓴물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이시는 한 나무를 받아 들여 단물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악 묵상

봉인 해제된 천상의 음악/알레그리의 <미제레레>

고대 로마인에게 파괴되었던 솔로몬의 성전 규모대로 건축된 교회, 각 지역 추기경들이 모여 새로운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는 교회, 교황이 예배를 집전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관저가 있는 교회, 특히 미켈란젤로의 천정화 <천지창조>와 제단에 그려진 <최후의 심판>을 비롯하여 라 파엘로, 보티첼리 등

르네상스 당대의 내로라하는 화가들이 그린 벽화가 즐비하게 서 있는 교회. 어딘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입니다. 그런데 위에 열거한 것 외에 음악적으로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교황청 성가대 악장 알레그리(G. Allegri, 1582-1652)가 작곡한 〈미 제레레〉(Miserere)에 얽힌 뒷이야기입니다.

곡의 가사는 라틴어 '미제레레 메이, 데우스'(Miserere mei, Deus)로 시작하는 다윗의 찬회시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뜻으로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를 범한 뒤 잘못을 뉘우치는 시편 51 편의 내용입니다. 이 곡은 고난주간 전례에만 연주되었습니다. 예배의식에 따라 촛불이 하나씩 꺼지고, 어둠 속에서 무릎 꿇은 교황과 모든 예배자가 속죄의 기도를 드릴 때 연주되던 곡입니다. 구조는 합창과 독창 그룹 사이를 중세의 찬트 (Chant)가 연결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독창 부분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당시에는 잘 쓰지 않던 고음을 사용해 인간 감성의 영역을 확장시킴으로 간절한 회개에 대해 위로와 평안으로 답해주는 듯합니다.

교황청은 이 곡이 교회 밖에서 연주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 위해 대문호 괴테를 위시하여 수많은 문화예술인이 성지 순례하듯 바티칸을 찾았습니다. 열네 살의 모차르트도 그 중 한 명입니다. 모차르트 방문 이후 교황청은 발각 뒤집혔습니다. 악보의 유출을 엄격히 규제했던 〈미제레레〉가 교회 밖에서 버젓이 연주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경위를 조사해보니 용의자는 소년 모차르트로, 한 번 들은 음악을 완벽히 암보하여 재연했던 것입니다. 교황은 모차르트를 불러 엄벌 대신 황금박차훈장을 수여하며 격려했습니다. 이렇게 알레그리의 〈미제레레〉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중력을 거스르는 듯 하늘로 올라가는 맑고 청아한 고음의 〈미제레레〉를 듣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고음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아름다운 주님의 평안이 나를 덮습니다. '미제레레 메이, 데우스.'